

# 국민 행복시대 여는 일꾼 되어주길

## 대통령 직속 체육위원회 필요



박재현 (54·광주시체육회 사무처장) 체육은 전문·장애인·생활체육으로 구분돼 있지만, 모두 문광부 체육국에서 관리하고 있다. 특히 전문 체육은 가장 빠르게 한국을 세계에 알릴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 직속 체육위원회 설치 필요하다.

## 경제민주화·민생살리기 올인



장병완 (59·민주광주시당위원장) 국가와 민족 앞에 헌신하겠다는 각오부터 단단히 해야 한다. 여러 갈등 해결은 물론 국민 역량을 결집해 통합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살리기에 역점을 두길 바란다.

## 차별과 소외의 호남 치유 시작돼야



김보현 (47·광주광역시의원) 제18대 대선은 반세기 이상 지속한 차별과 소외에 대한 호남인들의 상처가 얼마나 깊고 큰가를 보여주는 선거였다. 새 정부는 호남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

## 지방분권은 시대적 소명



임흥빈 (53·전남도의회 의원) 지난 10여 년간 중앙과 지방정부간,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따라서 새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지방분권 정책 추진과 지방의회의 활성화로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구현해야 한다.

## 민생해결의 답은 일자리 창출



김생기 (65·전북 정읍시장) 교육과 민생해결을 위해 일 자리를 늘려주길 바란다. 여성 대통령의 섬세함으로 지역 실정과 지역민 요구를 챙기고, 지역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확대해 지역균형 발전을 앞당겨 줬으면 한다.

## 일반 의약품 값 천차만별 불만 높아



문찬석 (56·나주 새공신약국약사) 일반의약품의 가격 안정화를 해줬으면 한다. 많은 약사들이 실력이 아닌 가격경쟁을 통해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존경받는 약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새 정부가 노력했으면 한다.

## 낙후된 호남 예산 지원 먼저



우윤근 (55·민주 전남도당위원장) 호남에 대한 어떠한 차별도 안된다. 지역 인사를 고루 등용하고 호남지역에 획기적인 국가정책, 대폭적인 예산지원을 기대한다. 누구에게나 공평한 법 적용이 되는 법치국가 확립을 기대한다.

## 48.6%의 국민 목소리에도 귀 열어야



주경нім (49·광주 서구의회 의원) 우선 대타결 정치로 국민대통합을 이끌어달라. 진정한 민생정부를 만들어주고, 공정 인본이 되도록 바로 잡아달라. 특히 지지하지 않았던 48.6%의 국민의 작은 목소리도 귀담아 들어달라.

##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하는 세상



이건철 (59·전남발전연구원장)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국토를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세계개혁 등을 통해 '부의 출렁' 및 '부의 세습' 현상을 억제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 했으면 한다.

## 4대강 사업, 평가와 검증의 시점



최서현 (41·광주환경운동사무국장) 4대강 사업에 대한 문제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새정부에서는 4대강 사업을 평가하고 검증해 바로 잡아 달라. 원자력발전소도 안전성에 문제가 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부탁한다.

## 택시 대중교통되면 서비스 질 향상



정승연 (70·개인택시 기사)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해달라. 그동안 대중교통 역할을 하면서도 천정부지 연료비와 승객 감소로 힘들었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고 감차 정책이 시행되면 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것이다.

## 갈라진 동·서의 줄기 하나로



주세운 (66·새누리전남도당위원장) 시작은 대타결인사에 있다. 새 정부는 역대 정부처럼 호남 차별·홀대의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불교를 통한 동서통합의 줄기를 이어가 이를 완성하길 바란다.

## 중소기업 위주 경제정책 환영



조정완(전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여론에 귀 기울여 적극 소통해 달라. 재벌위주 성장에서 벗어난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성해야 한다. 그리고 조세·복지 문제도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

## 위기의 농어촌, FTA 지원 대책 없어



최연수 (54·전남도수산과학원장) 잇따른 FTA로부터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농수산 분야의 관심과 투자가 절실하다. 새 정부는 FTA 체결에 따른 피해농·어업인 지원과 수산부문 조세감면 제도 신설 등을 고민해야 한다.

## 버스 전용차로 점거 차량 단속 부족



정경환 (56·대전운수 버스기사)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을 강력히 시행했으면 한다. 시내버스 승강장은 물론 버스전용차로에 하루종일 정차된 차량 때문에 많은 시내버스 기사들이 배차 간격을 맞추기 힘들어하고 있다.

## 환경미화원 처우개선 언제쯤



김정훈 (38·광주시 환경미화원) 환경미화원의 업무는 시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근무환경은 열악하다.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과 더불어 미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처우가 개선되길 바란다.

## 100% 나라, 민생 보듬기가 출발점



유수택 (새누리 광주시당위원장)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동서통합에 적극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 민생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삶을 가족처럼 따뜻하게 돌보는 민생정부를 만들고 이념과 세대, 지역, 계층을 하나로 묶는 100%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

## 약자 배려·남북 평화 정착 기원



류한호 (57·광주대 교수) 남북평화 정착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국민대통합을 위해 힘써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대통령·탐경정신이 실현될 수 있는 정책을 이끌어 갔으면 한다. 또 지방분권·지방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줬으면 좋겠다.

## F1 지원 부족...자동차 강국 만나



서인남 (52·F1조직위 공모팀장) 전남도가 주최한 F1 코리아 그랑프리 2010년부터 3년 연속 성공 개최를 통해 불모지인 한국에서 모터 스포츠를 정착시켰다. 자동차 생산국 세계 5위에 걸맞게 국제스포츠 행사와 유사한 수준의 관심과 지원 확대를 바란다.

## 청소년범죄 '처벌' 보다 '교화'



유희경 (48·서부경찰서 민원실) 경찰이자 엄마로서 청소년 범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면 가슴이 아프다.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청소년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교화프로그램을 개발해 새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주길 바란다.

## 우편배달부 인력 부족해 업무 과중



강준원 (47·우체국 우편배달부) 우체국은 공공기관으로서 일반사업장과는 다른 경영평가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업무량이 많아 하루 14시간씩 일하는 경우가 허다한 우편배달부의 인력 충원 문제도 해결해 주길 바란다.

## 일자리·교육·노후문제는 '국민 고민'



최명호 (47·광주 남구청장) 선거로 인해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고, 세대와 지역·이념을 아우르는 국민대통합의 시대를 열어달라. 또 대선 공약이었던 중산층 70% 시대 성공시켜 모든 국민이 일자리, 자녀 교육, 집, 노후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

## 농어업인 소득보장 대책 마련



최형식 (57·담양군수) 새 정부에서는 농어업인의 소득보장과 경영안정화,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농어촌 경쟁력 강화, 농어업 정책 추진체계의 과감한 개선을 위한 '농어촌 발전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길 바란다.

## 반세기 쌓인 지역감정 해소부터



이공석 (51·나주시의회 의원) 새 대통령의 공약들을 믿어보고 싶어하는 것이 대다수 국민이다. 이제는 반세기 동안 쌓였던 지역과 계층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세계인이 부러워할만한 멋진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길 정치인으로서 주문해 본다.

## 부채 탕감·반값 등록금 실현 믿는다



배길례 (60·주부) 박근혜 대통령이 서민들의 부채를 최고 70%까지 감면해주고 대학등록금을 절반으로 낮춰주겠다는 공약, 딱 2가지만 지켜도 성공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꼭 성공한 대통령을 보고 싶다.

## 스펙에 매몰된 대학 진리탐구 어디로



김준열 (23·전남대 3학년) 취업난, 스펙쌓기 등으로 '진리탐구의 장'이아 할 대학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 대학생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반값등록금·일자리 창출 등 제도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

## 지역자치는 국가발전 절대조건



민형배 (51·광주 광산구청장) 거대 담론도 종착지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일 수밖에 없다. 현장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지역자치야말로 국가 발전의 절대 조건일 것이다. 문제도 담도 현장에 서 구하는, 자치의 힘과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

## 지역밀착형 정책이 지자체 발전방향



강진원 (53·강진군수) 정이롭고 따뜻하며 국민이 행복을 느끼는 시대를 열어주길 바란다. 소통과 화합, 정치 혁신으로 청소년의 미래를 열어주는 정부가 됐으면 한다. 일선 지자체의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지역 밀착형 정책을 펴는 정부가 돼달라.

## 재정 독립 선행돼야 지방분권 정착



박승주 (60·광주발전연구원장) 지방분권의 정착을 위해 재정분권이 선행됐으면 한다. 중앙정부에서 나눠주는 지방교부세를 없애고,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50%를 지방공공체로 전환해 지방정부의 자주 재원화를 실현해 줬으면 한다.

## 보육시설 부족...워킹맘은 괴로워



김신애 (49·필리핀 이주여성) 다문화가정은 남편이 직업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부인들이 영아간사 등을 하면서 생활비를 버는데 어린 아이들을 맡길 곳이 마땅치 않다.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시설을 늘려 주길 바란다.

## 명문대 위주 입시에 학생 개성 상실



문성하 (18·고려고 3학년) 학생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특기를 살려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 정책이 필요하다. 평등한 기회를 위해 공교육 강화와 더불어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란다.

www.kjhr.com

# 謹賀新年

밝아오는 새해에는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성취하시길 바라며 가정과 직장에 행복과 건강이 항상 가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창업 30주년 **30% OFF SALE** 할인행사

국제보청기 독일 한사톤(HANSATON) 정품만 취급합니다.

| 본 점 | 062-227-9940 | 총장점 | 062-227-9970 | 목포점 | 061-262-9200  
| 장흥점 | 080-222-9975 | 서울점 | 02-765-9940 | 순천점 | 061-752-9940